

내외야 오가는 키움 김혜성 “경기력 영향 없어요”

팀 사정상 좌익수로도 출전...쉽지 않지만 ‘의연한 모습’

손혁 감독, 외야수비 대해 “천재 아닌가 생각”... ‘극찬’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김혜성(21)은 최근 팀 사정상 좌익수로도 출전하고 있다.

내외야를 오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김혜성은 경기력에 영향이 없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키움은 지난달 말 새로운 외국인 타자 에디슨 러셀을 영입했다.

러셀은 내야수고 외야 경험도 없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 주전 유격수로 뛰었다.

박병호, 서건창, 김광성, 김혜성, 전병우, 김웅빈 등이 포진한 내야가 이미 포화 상태였지만, 키움은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인 러셀을 전격 영입했다.

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해진 키움은 내야수 중 외야를 겸할 수 있는 선수를 찾았고, 김혜성에 이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달 2일부터 김혜성은 상황에 따라 내야수로 나서기도, 외야수로

출전하기도 한다.

24~26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3연전에 모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던 김혜성은 28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는 2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우천으로 노개임된 29일 두산전에서는 또다시 좌익수로 변신했다.

손혁 감독은 이런 김혜성이 고맙기만 하다.

손 감독은 김혜성의 외야 수비에 대해 “천재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극찬하기도 했고 “감독으로서 고맙다. 수비에서 실책할 수도 있고 안타를 못 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외야를 오가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7월 들어 타율이 0.208에 그쳤지만, 김혜성은 “수비 포지션을 옮겨 다니는 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포지션에 나가도 공을 잡고 아웃시키는 데 집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익숙하지 않은 외야 수비를 나갈 때 김혜성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거듭 다짐한다.

그는 “만세는 부르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수비한다”고 농담한 뒤 “실수하지 않도록 스타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언을 구하는 외야수가 있냐”는 말에 김혜성은 “따로 조언을 들은 적은 없다.”

좌익수로 주로 나서니까 중견수로 출전하는 선수들과 경기 중 대화를 많이 한다. ‘볼 플레이를 많이 하자’는 이야기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잠실 두산전에서 2루수로 나선 김혜성은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러셀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러셀은 당시 경기에서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김혜성은 “딱 1경기 같이 뛰었는데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믿고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감상을 전했다.

경기 전 러셀과 캐치볼을 하기도 했던 김혜성은 “러셀의 송구 동작이 한국 선수들과 많이 다른데, 정확도도 좋고 잘하는 선수라 믿으면서 했다”고 덧붙였다.

7월 들어 다소 주춤하지만, 김혜성은 올 시즌 타격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2019년 3월에 머물렀던 장타율은 올 시즌 0.424까지 올라갔다.

볼넷 수도 2018년 136경기에서 33개, 2019년 122경기에서 29개에 그쳤으나 올해 69경기에서 27개를 기록했다.

김혜성은 “지난해와 비교해 체중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중량을 늘려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10kg 정도 늘려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이것이 장타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볼넷이 많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볼넷의 중요성을 알게 돼 공을 더 보자는 생각을 한다”면서 “OPS(출루율+장타율)도 중요한데, 지난해까지 출루율이 낮았다. 출루율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해 볼넷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8회말 2사 주자 1루 키움 김혜성이 1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

‘선수 폭행·음주운전’ SK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 징계

미성년자 추행 롯데 지성준도 72경기 출장 정지

SK 와이번스가 선수단 관리 소홀로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SK 퓨처스(2군) 선수단과 롯데 자이언츠 지성준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선수단 폭행과 음주운전 등이 논란이 된 SK 퓨처스 선수단에서는 6명이 징계를 받았다.

먼저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훈계를 목적으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경기 외적인 폭력 행위를 한 김택형과 신동민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경찰 적발 여부를 떠나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서상준과 무면허 운전을 한 최재성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이 부과됐다.

동료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전의산은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출장 정지 제재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선수단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고도 KBO에 신고하지 않은 SK 구단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상벌위원회는 미신고 및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SK 구단에 야구규약 제152조 유행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거, 2000만원의 제재금을 내렸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혹 등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성준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72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훈계를 방치한 얼차려, 체벌 등의 폭력 행위가 KBO리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청 육상팀, 전국육상경기대회서 2개 메달 쾌거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금메달·20km 경보 이세하 동메달

여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경북 예천 공설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서 2개의 메달(금1·동1)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서 진민섭은 5m60cm를 1차 시기에 넘어 대회 신기록(종전 5m50cm)을 경신했다.

이후 자신의 보유 기록인 5m80cm보다 1cm 높은 5m81cm에 도전했으나 신기록 달성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20km 경보에서는 이세하가 1시간 43분 20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긁은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얻어 매우 기쁘다”면서 “여주시 소속의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20km 경보에 출전한 이세하 선수

오타니, 시즌 1호 3점포 작렬...선발투수 부진 만회

4번 지명타자로 출전...3점포 홈런



메이저리그(MLB)에서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26·LA 에인절스)가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렸다.

오타니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4회말 3점포를 날렸다.

0-1로 끌려가던 4회 두 번째 타석에 등장한 오타니는 시애틀 선

발 저스틴 던의 37번째 낮은 커브를 공략해 역전 스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시즌 1호 홈런이 나왔다. 지난해 9월12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솔로 홈런을 친 이후 322일 만에 손맛을 봤다.

이날 오타니는 4타수 1안타 3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67을 기록했다.

오타니는 올해 선발투수로도 1경기에 나왔다. 지난 2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선발등판, 아웃카운트를 한개도 잡지 못하고 5점이나 내준 후 강판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홈런으로 지난 경기의 부진을 조금이나마 만회했다.

한편, 에인절스는 7-10으로 패해 시즌 2승4패를 기록했다.

강진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규약 및 사무국 운영규정 심의·의결



강진군은 지난 29일 오후 5시에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욱 강진군수를 강진군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하고 차재훈 이사를 상임부회장, 윤재현 강진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백영종 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이사 19명과 감사 2명을 포함 총 22명의 임원을 선임했다.

이어 강진군장애인체육회 규약(안)과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강진군 장애인 단체 및 체육 관계자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강진군장애인

체육회 규약(안)과 사무국 운영규정(안) 및 임원 구성(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절차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해왔다.

강진군장애인체육회는 8월 중 2차 이사회를 개최해 사무국장 선임 및 202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식 승인을 받으면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이 전담해 체육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강진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체육활동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창립총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발점이며, 강진군 장애인체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한국말산업고 윤성혁, ‘소노 이벤트 승마대회’ 3위

한국말산업고 2학년 윤성혁 학생이 소노필리체 이벤트 시즌 6 승마대회에 첫 출전해 3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의 승마 클럽에서 개최하는 승마대회로 유소년과 생활체육 스타터들을 적극 응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열리고 있다. 윤성혁 학생은 7월

24일에서 26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일반인을 포함 49명이 참가한 장애물 105 class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장애물 105 class 부문은 장애물 높이가 가장 높은 고난이도 부문으로 많은 선수들이 실격을 당하는 어려운 코스임에도 높은 점수로 입상했다.

윤성혁 군은 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승마교관이 되는 꿈을 안고 한국말산업고에 진학했다.

지난 겨울방학 중에도 하루 4시간 이상 연습하고 말과 함께 생활, 체내 출전임에도 당당히 임상하여 꿈을 향해 한발짝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다.